미코바타의 은 채굴은 1,000년 이상 전에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5세기 미코바타는 이쿠노와 함께 본격적인 채굴이 시작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가장 생산량이 높은 광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70년대 말부터 1890년대에 걸쳐 생산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1896년 광산은 미쓰비시 합자회사에 매각되었습니다. 1909년 아케노베 광산에서 새로운 광맥이 발견되자 1919년 현(現) 미쓰비시 머티리얼 주식회사는 미코바타 광산을 폐쇄하고 선광장을 건설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확장공사를 실시해 1949년에는 동아시아 최대 선광장으로 알려지는 규모가 되었습니다. 아연, 구리, 주석 등의 광석은 아케노베에서 열차로 운반되었습니다.

미코바타 선광장은 험준한 사면에 세워졌습니다. 아케노베에서 운반된 광석은 정상에서 선광장 내부로 보내, 거기에서 부수고 물과 섞어 슬러리(이장)를 만듭니다. 슬러리는 선광을 위한 다양한 공정을 거치면서 경사면을 내려갑니다. 최종 공정에서 수분이 제거되고 광물만 남게 됩니다. 이 최종 공정에 사용된 것이 ‘시크너’ 라고 불리는 거대한 시멘트 깔때기입니다. 공장은 1987년에 폐쇄된 후 2004년에 해체되어 콘크리트 건물 기초부와 시크너만 남아있습니다.